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에스라-느헤미야, 세션 1, 에스라 1-2장

© 2024 티베리우스 라타 및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르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a)입니다. 1회기, 에스라서 1-2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과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학문적 훈련 그 이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독서 목록에 꼭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경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역사에서 어디에 있는지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씀에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 땅으로의 복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군주제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권정치에서 군주정치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군주에 의해 통치되는 전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울 치하에서 그가 첫 번째 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굳건히 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땅의 국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것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그가 행한 방법은 평화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 왕국을 확장했다면, 솔로몬은 평화를 통해 왕국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은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왕국의 매우 중요한 지도입니다.

다윗은 다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 7년 동안 다스린 다음 그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그 곳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왕국을 북쪽, 남쪽, 동쪽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솔로몬은 그 경계를 확장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 통치의 주요 초점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전의 청사진이 있는데 실제로는 성막의 청사진에 따라 완성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유일한 차이점은 성막이 더 작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영구적입니다. 창고도 더 많고 주변에 대야도 더 많지만 설계도는 똑같습니다.

제물을 바치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성소와 지성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떡 12개가 놓인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춧대는 성막에 단 하나뿐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성전에는 일곱 가지 춧대인 메노라가 많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왜 분향단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곳은 밀폐된 공간이라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소를 가득 채우는 기분 좋은 향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성소인 언약궤가 있는데,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궤 안에는 만나 한 그릇과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사원의 복제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성전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이 확장되었고 법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헤롯 대왕은 예수 시대까지 그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구조는 대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인에 의해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 중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이 없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음, 이 성전은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바벨론 유배로 끌고 갔을 때 그들에게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후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성경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누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네 아버지 데이비드 때문에 나는 네 평생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죽은 후에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은 수도를 세겜으로 하고 그 후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 왕국인 유다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로 알려져 있고, 남쪽 왕국은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표를 보면 비록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10개의 왕조, 10개의 지파, 10개의 왕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에는 단 하나의 왕조, 다윗 왕조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더 크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자매인 유다가 587년에 멸망하는 것보다 더 빨리 멸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메시아가 나올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다윗 계통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다윗 왕조라는 하나의 왕조만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587년에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은 BC 722년에 앗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다가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됩니다.

또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북왕국이 무너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왕국에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며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네 동생에게 일어났던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 가끔 '아, 나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매우 반복적입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러 보내겠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가 책의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데려올 예정이다. 내가 다시 데려올 신실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결과 중 하나는 북쪽 왕국이 앗수르에게로, 남쪽 왕국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옵니다. 성경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 신들과 여신들, 불의를 따르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허한 의식을 치르고, 동작을 따라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갖 종류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그들은 성전에 가서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기관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은 앗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일부는 추방됩니다. 모든 사람이 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유배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모두가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북왕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점령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가져갔습니까? 글썄,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잃어버린 이스라엘 10지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사람들이 앗수르 사람들을 점령할 때 그 백성이나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사렛서는 일부 사람들을 유배시킵니다. 그 사람이 모두 데려갔나요? 아니요, 그는 모두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들이 누구를 데려가고자 하였습니까? 그들은 두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두 가지 언어 시스템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젊은 귀족을 데려가고 싶어합니다.

두 경우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망명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돌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즉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그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 일부가 여기에 수학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학은 있습니다. 따라서 587에서 587에 70을 빼면 BC 517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돌아오도록 한 키루스의 칙령은 훨씬 더 이른 539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0이 아닙니다.

그러니 587에서 70을 빼면 517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다가 539년에 하나님께서 이방왕, 이방왕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아래 있는 유대인 여러분, 고레스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이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빌로니아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땅을 포함하여,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을 포함하여 지금 함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수도는 수사였습니다. 망명중인 여러분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돈도 주겠다.

와, 정말 변화네요. 철권으로 통치했던 바빌로니아 사람들과는 참으로 큰 변화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은 내가 마르독을 숭배하면 너도 그를 숭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기억하시나요? 형상을 숭배해야 합니다. 사이리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야훼를 숭배하고 싶어도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내가 금고에서 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페르시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적어도 200년 전에 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네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유배지로 보낼 것이다. 그 땅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네게서 빼앗아 갈 것이다. 공허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포로 생활에서 세 번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배로의 추방이 세 번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반쯤이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 597년, 587년에 세 차례의 유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추방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세 번의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세스바살, 스룹바벨, 여호수아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주요 리더입니다.

그는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모르는지에 대해 온갖 종류의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5만 명의 유대인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은 에스라 시대 약 2,000년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얼마나 늦었는지 주목해 보세요.

훨씬, 훨씬 나중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세 번째 귀환 물결은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돌아온 유대인의 수를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망명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돌아온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는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회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 시온 산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원래 다윗의 성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솔로몬이 확장했고, 히스기야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성경 본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원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한 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에스라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둘 다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것은 에스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하는 리더십 원리를 찾기 위해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요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책은 그렇게 시작된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산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에 공포하고 글로 써서 남겼습니다. 페르시아 왕, 주 하늘의 신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각 생존자가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 곳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움을 받고 그 외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드릴 약간의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런 다음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서 이교도 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세계의 지도자를 믿고 신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대법원이나 인간, 인간 기관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교 왕들이라도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많은 평안을 줍니다.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통제하십니다. 이 경우, 기원전 559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 고레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해에 관해 말씀하실 때, 그는 바벨론을 정복한 첫 해를 가리킵니다. 그의 통치 첫 해가 559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통치 첫 해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 칙령은 539년에 주어졌다.

그러나 8세기 선지자 이사야는 매우 흥미롭게도 고레스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렀습니다. 무엇? 주님의 메시아,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궁극적으로 단지 그리스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경우에는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불린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5:1. 하나님은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윌리엄슨은 자신의 주석에서 성경 기자가 법령 사본의 제목이나 식별 표시에서 파생되었을 수 있는 외부 역사 사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의 신성한 질서와 목적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70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587에서 70을 빼면 517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음, 그 칙령은 539년에 주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517년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재개될 때까지 회복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87에서 70, 517을 빼면 복원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인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라 하므로 거기에서는 여호와를 사용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 9번 나오며, 그 때마다 야훼를 가리킨다. 이제는 페르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문구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레스를 부르실 수 있는 주권자이실 뿐 아니라 이사야 44, 28절에서는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겠고 성전은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였느니라 사이러스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을 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키루스 원통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키루스 원통은 설형 문자로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키루스가 539년에 바빌로니아인들을 물리치고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에만 감동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마음에도 감동하셨느니라 5절과 6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올라가는 모든 사람이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값비싼 물품으로 그들을 도왔으며 그 밖에도 예물을 많이 드렸더라.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과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자들은 제사장, 레위인, 평신도의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건축을 위해 자신의 소유물을 기부하는 데 매우 관대합니다. 7절, 고레스왕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신들의 전소로 옮겨 간 기명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왔느니라.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성전 물건을 다시 성전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신들의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9-11절에는 주어진 모든 것, 즉 금과 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금과 은과 기명을 돌려받았고 이 모든 것도 돌려받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어떤 사람들이 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떠났는데 그들이 많은 탈취물과 금과 은을 가지고 갔느니라. 아, 출애굽 사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출애굽의 많은 것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큰 사건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 곧 출애굽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오늘날의 기독교 지도자는 출애굽 때 역사를 지휘하신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를 지휘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의 역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확실성이나 부패한 정부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실 수 있고 또 극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되고 경건한 남자와 여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연대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도표는 에스라서의 연대기를 보여주며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1장부터 10장까지, 날마다, 해마다 연대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기자가 연대순 형식이 아닌 주제별 형식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시작해서 7장, 8장, 9장, 10장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아닥사스다 통치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성벽을 재건하려는 반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업은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따라서 때로는 일이 반드시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순서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연대기를 이해하기 위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볼 때 이 도표를 보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그들은 통혼의 죄를 다루고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통혼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문제는 그들의 인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므로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어 2장은 회복의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목록이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세 가지 중요한 목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열,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 가족 기록 없이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회복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간 자들 가운데서 나온 그 지방 백성들이더라.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각각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목록은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1절과 2절에는 제목이 있고, 3절부터 35절까지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의 명단, 레위 사람들의 명단,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 문지기들의 명단, 느디님의 각종 종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 족보를 모르는 자의 명단, 총액의 명단, 성전 은사의 명단,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1절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 이유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망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2절에는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느헤미야, 스리아, 르엘라야, 모르드개, 빌산, 미스발, 비그왜, 르흠, 바야나가 있고 이 모든 것의 이름이 다시 언급됩니다. 이제 이름이나 지리적 위치로 귀환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절의 두 번째 부분부터 35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식이 있습니다. x의 아들과 y의 남자를 말합니다. x의 아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에 의해 명확하게 식별됩니다. 이름과 y의 남자들이 있고 때로는 위치로 식별되기도 합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언급합니다.

유배 기간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직업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그들은 봉사할 성전이 없었지만 제사장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많은 제사장 가문들이 돌아왔는데, 느헤미야는 그들 중 귀환한 사람들의 약 10%에 해당하는 네 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윌리엄슨은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 계층의 꾸준한 발전이 있었다고 제안하고 인용합니다. 이 발전은 구약의 다양한 목록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이는 제사장 체계의 출현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24개의 사제 코스. 그런데 이 제사장들 중 일부는 역대기상과 느헤미야서에 다시 언급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포로 기간 동안 어떤 직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별도로 식별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음악과 기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곧 아삽 자손이 언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42절에는 문지기의 자손이요, 43절부터 4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이요 392절부터 58절까지 말씀합니다.

성전 종들 중 일부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예가 아니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들 이름 중에는 이집트인, 아라비아인, 바빌로니아인, 에돔인, 우가릿인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곳 성전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전쟁 포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군주제 시대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지식에 근거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솔로몬의 종들의 아들들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종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었음을 더욱 드러냅니다. 59절부터 63절까지는 가족 기록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가족 기록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배경인 [ancestry.com](https://www.ancestry.com)을 조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글썬요,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잘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한 일부는 실제로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왔던 바빌로니아 도시로만 식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순수성에 대한 관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순수성이라는 주제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실제로 42,36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 물결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주요 초점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귀환자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이름들이 그 증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은 안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굴이 있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종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숫자를 세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각 이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가르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Dr. Tiberius Rata)입니다. 1회기, 에스라서 1-2장입니다.